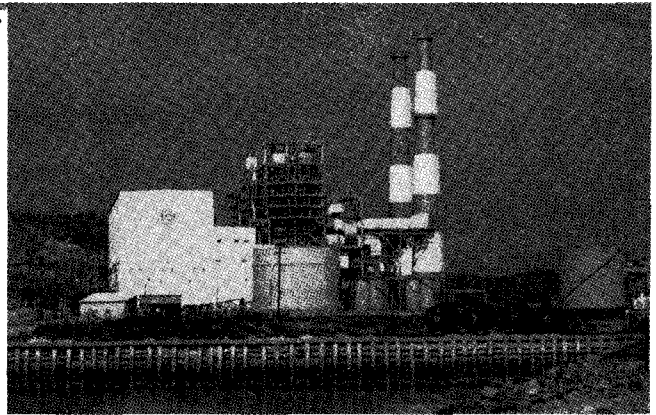


# 京仁에너지를 찾아서



## 정유 및 발전사업등 겸업체제에서 석유정제·석유화학회사로 탈바꿈

京仁에너지는 우리나라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제2차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한창 진행되던 1969년, 한국화약그룹과 미국의 「유니온 오일」(Union Oil)사와의 합작투자로 설립되었다.

仁川직할시 울도(栗島)지역에 일일 생산량 6만 배럴의 정유공장과 일일 발전량 324,800KW의 火力발전소를 건설하여 석유류 전제품과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창립 이래 20여년간 특히 국내산업의 에너지공급을 위해 크게 기여해오고 있다.

1983년말, 합작사인 Union Oil사의 지분을 전부 인수, 순수 국내자본만으로 새롭게 출발한 경인에너지는 1990년대 들어 정유와 발전사업만의 단순한 사업 영역에서 벗어나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 회사로 탈바꿈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00년대에는 종합에너지 및 종합화학 기업으로 성장하여 나갈 계획이다.

### 1. 석유정제사업

원유처리능력 6만B/D 규모를 갖고 있던 정유공장은 1992년 3월, 10만배럴 규모의 신규정제시설을 완공함으로써 총 16만B/D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규모로

확대되었다.

또한 날로 증가하는 휘발유 수요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2만5천B/D의 휘발유 정제시설을 신규건설함으로써 하루 3만1천 배럴 규모의 휘발유 제조시설을 갖추었다.

아울러 환경오염 방지노력의 일환과 석유제품 수요구조의 경질화 추세에 맞추어 각각 3만B/D 규모의 중질유분해 및 탈황시설이 93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건설중에 있으며, 이에 앞서 경질유 탈황 시설 3만B/D 시설이 가동중에 있다.

### 2. 전력사업

석유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에너지源의 하나인 전력을 생산해오고 있는 京仁火力발전소는 현재 국내 유일의 민간보유 화력발전소로서 경인에너지의 모태이며 자랑이다.

324,800KW의 용량인 경인발전소는 1972년 상업발전 개시 이래 발전신뢰도 99.9%라는 경이적인 기록(세계 우수 발전소의 평균 신뢰도 : 75%)을 갖고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된 전력 전량을 한국전력에 공급, 판매함으로써 공급측에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국내 전력난 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3. 윤활유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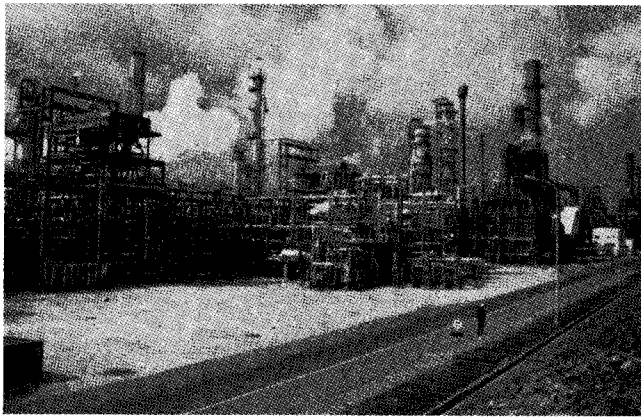
산업고도화에 따라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고급윤활유를 공급하기 위하여 세계 유수의 석유회사인 영국의 BP(British Petroleum)사의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판매하고 있는 윤활유사업은 '89년 12월부터 시작되었다.

윤활유 부문에서 가장 진보된 기술을 보유한 BP사의 기술도입에 따라 자동차용으로부터 산업용, 선박용등까지 각종 최첨단의 고급 윤활유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윤활유공장은 하루 1,000B/D 규모의 생산능력을 지니고 있다.

현재 윤활유생산 시설은 중앙집중 제어방식의 채택으로 고효율화 정밀화를 지향함으로써 하루 4000배럴에 이르는 고품질의 윤활유를 생산하고 있다.

京仁에너지가 고품질의 윤활유 생산 체제를 갖춘것은 물론 영국 BP사의 「센버리」연구소에서 개발한 첨단제품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이룩된 면이 크긴 하지만 京仁에너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 한층의 고품질화를 지향하고 있다.

京仁에너지는 윤활유 전용 실험실과 제품연구실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우수정에 인력이 IEP(Ion Coupled Plasma Analyzer) 등 40여종의 첨단연구에 몰두



〈京仁석유화학 플랜트〉

「이사우에네」 광구, 상당량  
原油발견, 희망부풀어

## 외국合作에서 국내자본만으로 제2의 창업 2000年代 종합에너지·종합화학기업 指向

하고 있다.

또한 현재 건설중인 해상기유하역시설, 첨가제 벌크탱크 및 플라스틱 캔 자동 충전라인등의 조속한 완공으로 원료 구매의 가격경쟁력과 유연성을 높이며 급속하게 변화하는 소비자 욕구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의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산업구조의 선진화와 장비의 고급화로 수요가 점증하는 특수유회유 및 고급 유회유 개발에 힘을 쏟고있는 京仁에너지는 제품기술에서 시장을 선도하며, 전국적인 서비스 및 판매망의 확충을 완료하여 급속히 성장되는 시장점유율에 걸맞는 영업 및 소비자 지원체제를 확립할 것도 다짐하고 있다.

### 4. 석유화학사업

석유정제만의 단순한 사업영역을 벗어나 수직계열화를 이루려는 목적으로 92년 3월 방항죽계조 공장을 건설하였다.

벤젠 년산 5만톤, 자일렌 년산 26만톤 규모의 시설능력을 지닌 BTX공장은 석유화학 기초원료의 국내수요를 충족시키는 물론, 상당량의 제품을 국외로 수출하

고 있다.

京仁에너지는 향후 BTX사업을 중심으로 한 연관 석유화학사업을 계속 확대하여 나갈 예정이다.

### 5. 유전개발사업

석유 한 방울 나지않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 석유자원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원 확보와 보다 저렴한 개발 원유도입을 통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경인에너지는 지난 85년 이래 해외유전개발사업에 꾸준히 참여해 오고 있다.

현재는 인도네시아 와림(warim) 광구를 비롯하여 에쿠아도르, 알제리, 호주 등 4개국 5개광구 개발사업에 참여중이다.

경인에너지는 늘어난 정제시설 규모에 걸맞는 사업규모에 이르도록함은 물론, 상·하류 부문의 일관된 수직계열화를 이루기 위하여 해외유전개발사업의 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京仁에너지의 이러한 전향적 기업 자세와 끈질긴 노력은 알제리 남동부 리비아 접경지대의 「이사우에네」 광구에서 지난 12월부터 2개의 石油 시추정을 탐사한 결과 마침내 두곳 모두에서 상당량

의 原油를 발견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여러 신문에 크게 보도되기도 했다.

### 6. LPG사업

경제발전예 따른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편리하고 공해없는 연료를 선호하는 국민들의 욕구 증가로 가스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경인에너지는 LPG수입, 판매사업을 새로이 전개기로 하였으며, 94년말 완공을 목표로 15만톤 규모의 LPG수입기지 건설을 인천공장내에 건설할 계획이다. 이 기지가 건설되면 가스 수요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부권지역의 가스수급 원활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京仁에너지는 임직원이 현재 제2의 창업기를 맞고 있다고 모두 믿고 있어 사내 분위기는 의욕에 넘쳐있다.

창립 20년의 역사를 넘어가는 시점에서 종합석유정제 및 종합석유화학회사로 발전하기 위해 새로 태어나려는 결의들도 대단하다.